

혁신도시 효과.. 금융기관 여수신 증가폭 확대

입주기관 운영자금·예금 증가 부동산 자금 단기금융상품 유입 한은 '광주·전남 금융동향'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 지속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금융상품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됐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에 따라 입주기관의 운영자금과 기금이 들어온 데다 직원들의 예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14년 광주·전남지역 금융동향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수신은 2조9300억원에서 5

조6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예금은행 수신은 전년 1조3251억원에서 2조3365억원으로, 비금융기관 역시 1조6048억원에서 2조670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약 1조원이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단기금융상품인 수시입출출금예금은 1조6847억원(12.6%)으로 전년 1조672억원(8.7%)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MMF 등 단기금융상품 잔액은 2445억원(22.0%)으로 전년 1872억원(20.2%)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예금은행 수신은 지난해 하반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 등 입주기관 및 직원의 예금이 나주시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이 지역 수신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하반기 중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신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산이 보통예금 등 수시입출출금예금(예금은행)과 MMF(비은행금융기관) 단기금융상품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특수은행 모두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금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 등의 수신 증가폭이 컸다.

예금은행 여신은 2조8592억원으로 전년 3조2823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비은행금융기관은 전년 8725억원에서 2조1601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가계대출(1조 2293억원 → 8331억원)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상

반기에는 주택 매매관련 세제혜택 종료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가 하반기에 다시 큰 폭 증가로 전환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개선(2014년 8월 시행),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 담보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만3847가구로 같은 해 상반기 2만2000가구보다 증가했으며, 전년 하반기 1만7390가구에 비해서도 늘었다.

한편,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도 하반기 중 2716억원으로 전년 동기(2329억원)보다 387억원 확대돼 이러한 경향을 반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98.29 (-3.09)
- ▼ 금리 (국고채 3년) 1.98% (-0.01)
- ▲ 코스닥 630.35 (+4.71)
- ▲ 환율 (USD) 1097.70원 (+1.30)

귀뚜라미보일러,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 8년 연속 1위

(주)귀뚜라미(대표 이종기)는 4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에서 귀뚜라미보일러가 8년 연속으로 가스보일러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일러를 구매할 때 가장 큰 고려 요인인 '가스비 절감'을 주요 메시지로 활용해 '가스비 잡는' 귀뚜라미의 기술력을 소비자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 연소 및 열 교환 기술에 끊임없이 투자, '가스비 잡는 보일러=귀뚜라미보일러'라는 공식을 만들어 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귀뚜라미보일러가 보일러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최상의 제품을 통해 '가스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

공해는 결과물"이라며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속의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들에게 귀뚜라미의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는 제조업 부문 33개 산업군, 118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각 브랜드들의 마케팅 활동,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관계, 구매의도, 브랜드 충성도 등 총 6개 구성요소별 평가 점수로 이뤄졌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지난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사우디 원자력 협력 MOU 서명식'에서 오마르 A 합자 사우디아라비아 SSEMMA 대표(왼쪽부터), 조환의 한국전력 사장, 조현상 효성 전력본부 부사장이 사우디 아라비아 원전 건설의 안정적인 전력 기자재 공급을 지원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효성·한전, 사우디 전력·원자력 시장 진출

효성, 6000억 규모 전기기자재 공급 MOU 체결

한국전력과 효성 등 국내 대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원자력 사업에 진출한다.

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3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 포시즌 호텔에서 사우디 전력공사(SEC)와 전력산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우디전력공사는 사우디 전체 전력수요의 85%를 담당하

는 국영 전력회사다. 한전은 전력산업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원자력을 포함, 발전과 신재생, 송배전, 에너지신사업과 제3국 해외 공동진출 등의 분야에서 사우디 전력공사와 협력하기로 했다.

효성 등 대기업도 이날 사우디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사우디 원전분야 기자재·시공 협력사간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서명식에는 효성코퍼레이션, LG

전자, 동양방식 등 한국 4개 기자재 공급업체와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5개 시공업체가 참여했다. 사우디 측에서는 사우디 최대 전력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인 SSEM을 비롯해 자밀그룹, 엑스마트, HGIS 등 기자재 공급사와 RTCC, 내셔널 콘트랙팅 등 7개 시공업체가 참여했다.

양국 산업계는 사우디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건설 경험을 공유하고 기자재와 시공 분야의 기술교류 등 다양한 협력

중기 FTA 활용 CEO 간담회

산단공 호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윤철)가 산업단지 입주 수출기업 및 예정기업에 대한 FTA 활용 및 수출 촉진을 위해 4일 산단공에서 중소기업 CEO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10만개 육성 정책에 발맞춰, 산업단지 내 수출기업 및 수출예정기업에 대상으로 FTA 이해 및 활용 노하우 공유와 더불어 수출 전반의 노하우 전수 및 애로 해결을 위해 추진됐다.

산단공은 현재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을 구성, 수출 애로기업과 멘토기업을 연계하는 멘토-멘티 간 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효성은 펌프 전문 계열사인 효성스프링스와 함께 현지에 전력 기자재와 펌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총 2조 원 규모의 현지 전력기기 시장 중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전동기, 비스디젤발전기, 펌프 등 6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우디는 2040년까지 18GW 규모의 원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원전 2기를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한국 대기업들은 본격적인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대보름, 아몬드·마카다미아로 부럼깎는다

호두·땅콩 등 매출 줄고

외국산 견과류 판매 급증

정월 대보름인 5일을 앞두고 호두를 비롯한 전통 부럼 못지않게 아몬드나 마카다미아 등 외국산 견과류가 세로로 인기 부럼으로 뜨고 있다.

4일 오픈마켓 육선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견과류 판매가 지난해 대보름 직전 일주일(2월 4~10일)보다 14% 증가했다.

작년과 종류별 판매 비중을 비교해 보면 호두·땅콩·잣·은행 등 부럼용 전통 견과류는 72%에서 63%로 줄었다.

반면 아몬드·마카다미아·캐슈넛·해바라기씨 등 외국에서 온 이른바 '니즈 부럼' 비중은 28%에서 37%로 경증 뛰었다. 최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포장 견과류가 인기를 끌면서 대보름을 앞두고 아몬드와 마카다미아 등 니즈 부럼 판매도 크게 늘었다

고 육선은 설명했다. 하지만 단일 품목 판매 비중을 보면 여전히 호두가 32%로 가장 커 전통 부럼의 지력을 과시했다.

지난해 대비 매출 신장률은 해바라기씨·땅콩이 38%로 가장 높았고, 마카다미아·피스타치오가 16%로 그 뒤를 이었다. 호두 매출은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마트 광주 상무점 관계자는 "엘빙 바람을 타고 견과류 섭취가 점점 일상화·대중화하면서 젊은 층도 부럼깨기 같은 전통문화를 더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마카다미아 같은 외국산 견과류의 경우 울 들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월 대보름에는 복을 불러들이고 액을 막는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다. 이날 아침 부럼을 깨물면 한 해 동안 무사태평하고 부스러미 나지 않는다고 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팩 (6,000원)

6.25에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착한 소갈비수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원~4백만원 이상 대박!!

262-0049/010-3803-2612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오차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께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아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갈비수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안트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